



공무원 인권교육 표준 교안 시리즈 1

교 정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표준교안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인 권 교 육 담당관실

I. 교안의 개관

1. 교육목표

- 1) 교정 공무원들이 인권의 개념과 유형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현 교정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알도록 한다.
- 3)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들을 통해서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 4) 교정과 관련된 인권직무지침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대상 및 교육환경의 특성

- 1) 교육대상
 - 교정 공무원
- 2) 교육환경 및 상황
 - 현 교안은 1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3시간 동안의 대형강의를 기본으로 교안됨
 - 교육생 규모와 강의실 환경, 기자재 지원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그것에 따라 적용해야 함
 - 다루는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규모와 환경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방식을 다르게 하도록 제시함
 - 전개와 심화단계를 조절 가능하도록 하여 다루는 내용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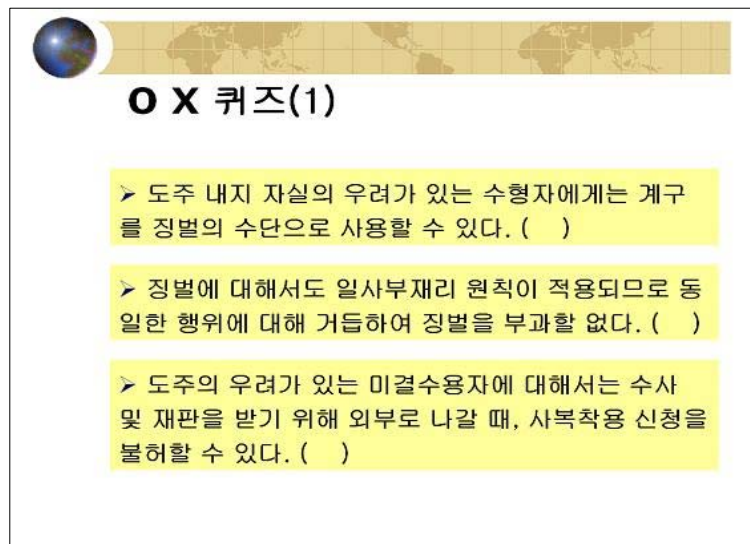
3. 교수자료 및 교수매체

- 1) 파워포인트 교수 자료(pc와 beam projector의 교수매체 지원시)
 -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설명함
 - 근거 : 강의 내용을 그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여 설명을 해서 교육생들의 기억과 이해를 촉진시킴

- 2) 교육생용 교재 (교수매체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파워포인트 교수 자료를 인쇄한 교육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설명함
- 3) 강사용 매뉴얼에 신문자료 넣기, 소감 쓰기 란을 사용(loose-leaf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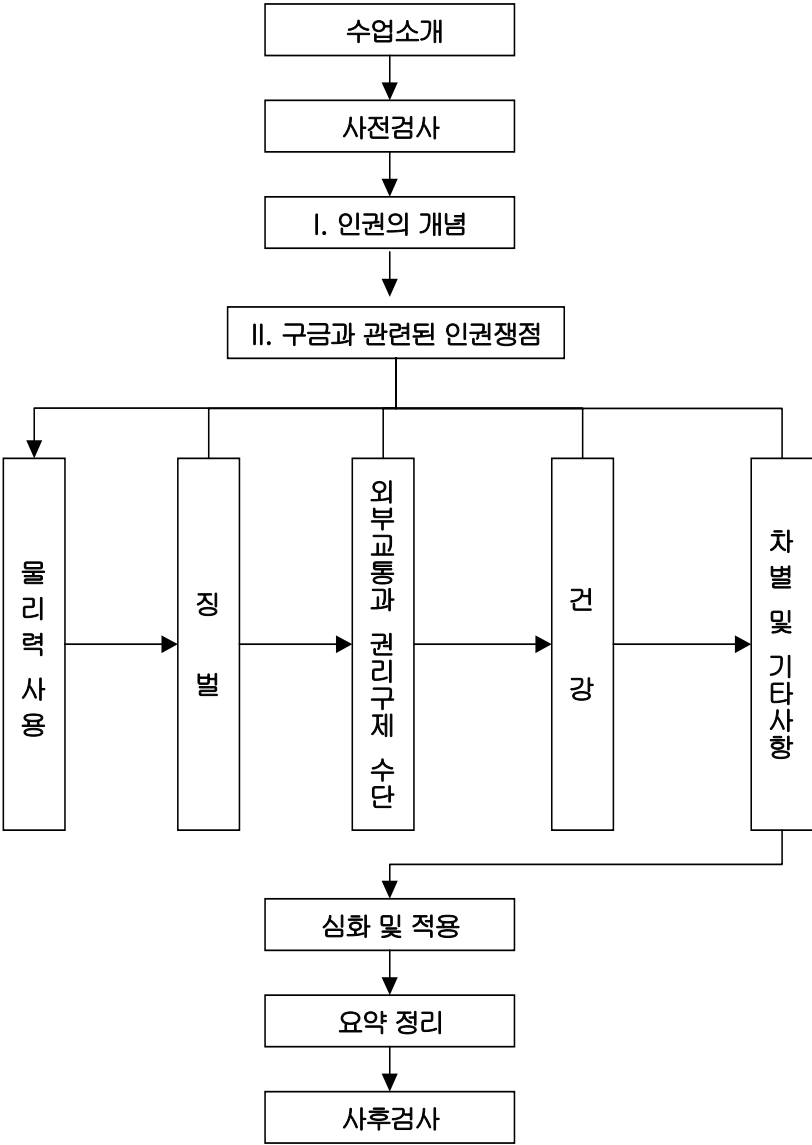
4. 평가도구

- 1) 사전검사 : 도입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간단한 OX퀴즈를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교육생의 사전지식 정도를 파악하도록 함



- 2) 사후검사 : 사전검사와 같은 문항의 OX퀴즈를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학습정도를 평가함.
- 3) 강의평가 : 강사, 교육생용 강의 평가지를 제작하여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 반영함

5. 전체 교육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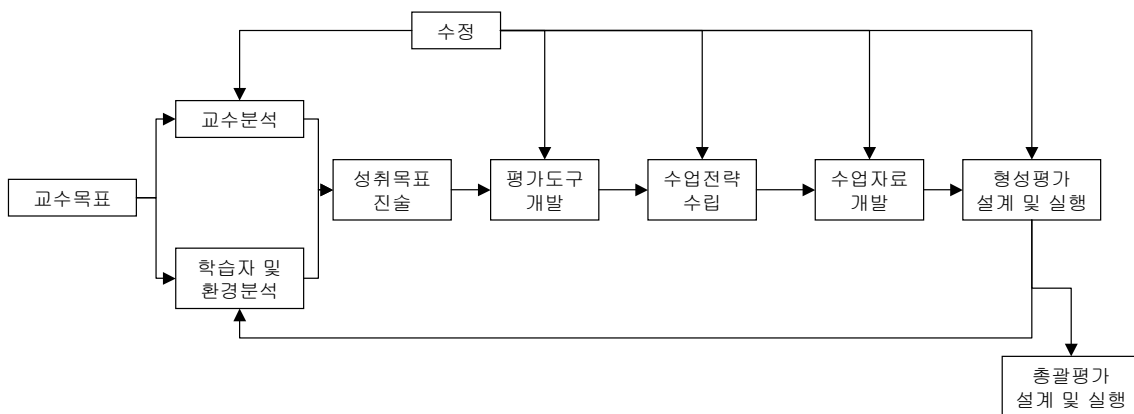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 교수 설계

▶ 딕과 케리(Dick & Carey)의 ‘교수체제설계 모형’

본 교안은 딕과 케리의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황에 맞추어 수정, 개발되었다. 이 교수설계모형은 체제접근에 입각하여 교수설계, 교수개발, 교수실행, 교수평가의 과정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모형이다. 이것은 절차적 모형으로서 효과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과 그 단계들 간의 역동적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형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딕과 케리의 모형에 나타난 각 교수단계들을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즉, 계획, 실행, 평가, 수정의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제 속에서 파악된다.

◎ 수업 진행

▶ 가네(Gagné)의 ‘수업사태 이론’

본 교안은 가네의 ‘수업사태 이론’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수업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주의력 획득시키기

- 수업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획득시키는 다양한 상황을 사용한다.

2) 수업목표 알리기

- 교육생에게 수업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서 학습이 끝났을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하여 동기화 시킨다.

3) 선수학습의 회상 자극하기

- 교육생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선수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4) 자극 제시하기

- 교육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 때 다양한 예들을 사용하여 그 개념 또는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학습 안내 제시하기

-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통합시키고 그 결과를 장기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의미하게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안내를 제시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 수업에서는 도표, 그림, 플로차트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한다.

6) 수행 유도하기

- 이것을 통합된 학습의 요소들이 실제로 학습자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새로운 학습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업시간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자발적으로 의견을 말하도록 하여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피드백 제공하기

- 교육생들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의 수행에 대한 강화의 기능을 하게 되며,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그들이 최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8) 수행 평가하기

- 강사는 교육생들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전에 주어진 상황과 유사한 문제사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9) 파지와 학습의 전이 증진하기

- 새로운 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반복과 적용이다.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기억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적용하는 것은 전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처음에 학습된 특정 상황을 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배운 기능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가르쳐야 한다.

과 정	사 태
주의	주의 획득하기
동기화	학습자에게 수업목표 알리기
선택적 지각	선수학습 회상 자극하기 자극 제시하기
의미적 부호화 장기기억에 저장	학습 안내 제시하기
탐색과 회상 수행	수행 유도하기
피드백	피드백 제공하기 수행 평가하기 파지와 전이 높이기

◎ 교수 방법 및 교수 전략

▶ 콰이겔루스(Reigeluth)의 ‘미시적 조직 전략’

본 교안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일반화를 획득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성의 획득은 일반성과 전형적 사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즉, 일반성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많은 사례들을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일반성의 법칙). 그리고 시각자료에 주의집중하여 개념을 정리하면서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념 적용을 위한 교수방법〉

일상적 방법			심화 방법
제 시	일반성	이름, 상위개념, 결정적 속성	주의집중, 표상의 다양성
	사 례	결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것	사례의 난이도 증가, 주의집중, 표상의 다양성
연 습	연 습	결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것(다양성)	연습문항의 난이도 증가
피드백	피드백	정보제공	주의집중, 표상의 다양성
		동기유발	칭찬 혹은 격려

(1) 일상적 방법

개념적용을 위해서 활용되는 일상적 방법에는 제시, 연습, 피드백이 있다.

○ 일반성

개념 적용 학습 과제의 획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시되는 일반성은 학습자들이 사례를 분류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에 학습자들이 해당 개념과 관련된 다른 것들을 학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종류의 학습과제의 획득을 다루어야 한다.

○ 사례

모든 일반성을 사례를 가지고 있다. 사례를 제공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례는 매우 발산적이어야 하며, 몇몇 사례들은 대응적 비사례와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사례의 ‘최소 결정적 요소군(minimum critical subset)’은 어떤 개념의 전체 다양한 사례 중 주요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이 사례를 설계하는 과정에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일상적 방법들을 어떠한 순서로 제시하여야 하는가? 일반성, 사례, 연습의 순서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로 먼저 전형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형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일반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심화방법

개념 적용 학습 과제를 위한 심화 방법은 각각의 일상적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일반성

일반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주의집중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성의 주요 부분(명칭과 결정적 속성)에 대한 획득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도표나 부연설명하기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일반성 획득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은 일련의 단계로써 결정적 속성들이 모두 다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일련의 단계로써 결정적 속성들이 모두 다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례

사례 방법에 대한 심화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물론 사례 숫자의 증가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들은 서로 유사하며 사례를 분류하는 데 어려운 것이 있다. 따라서 보다 쉬운 과제들을 먼저 제시하고 점차로 어려운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난이도 증가 계열(easy-to-difficult sequences)이라 한다. 또한 주의집중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어떠한 사례가 일반성의 결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데 표상의 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다.

○ 연습

연습을 심화하는 방법은 연습 숫자의 증가이며, 난이도 증가 계열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선생 연습 문항에서 제시되었던 촉진(prompting)을 포함할 수 있다.

○ 피드백

피드백의 심화는 사례의 심화와 유사하다. 결정적 속성의 존재 유무를 분명히 지적함으로써 사례와 일반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의집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답에 대한 피드백은 표상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동기유발을 위한 심화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정답에는 칭찬을 제시하며, 오답에는 격려를 제시할 수 있다.

▶ 유의미 학습과 ‘초인지 과정’

본 교안의 교수과정과 평가과정은 초인지 이론을 근거로하여 개발되었는데, 초인지 이론의 도식화 개념과 자기 검사(self-testing)를 본 교안에 적용시켰다. 초인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미 학습은 정보를 장기기억에 부호화하고 저장하며, 그것을 회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초인지(metacognition)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초인지는 사고 자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초인지에는 발췌, 정교화, 도식화, 조직화, 인지적 감지력 등이 포함된다.

○ 발췌(abstracting)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정보를 조절 가능한 양으로 줄이는 것이다. 발췌의 결과는 주요 내용의 개요나 요약으로 나타난다.

○ 정교화(elaborating)

이 과정은 정보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나가는 것이다. 최초의 아이디어에 비해 정교화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친근하다. 정교화는 예나 삽화, 그림, 비유, 은유를 사용하거나 내용을 독자 자신의 말로 다시 적어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도식화(schematizing)

도식(schema)은 정보를 이해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구조화할 때 사용하는 기본 틀이나 부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식은 학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사고의 틀과 같다. 따라서 도식은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초인지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조직화(organizing)

조직화는 내부의 구조를 발견하기보다는 자료에 구조를 부과하려는 노력이다. 조직화의 부수적인 특징은 장, 절, 머리말 등과 같이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묶음으로 나누고 도식화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인지적 감지(monitors)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정기적으로 계속 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적 감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1) 자기질문(self-questioning) :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가?’,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
- 2) 목표 설정 : 스스로 ‘내가 어떤 수준의 수행에 도달하기 원하는가?’를 결정한다.
- 3) 자기검사(self-testing) : 자신이 얼마나 학습했고, 얼마나 학습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
- 4) 환경점검 :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학습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의 의견을 듣는다.
- 5) 피드백 활용 : 시험의 결과와 숙제, 수업에서의 활동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이해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결정한다.

▶ 학습동기유발 전략 - 켈러(Keller)의 ‘ARCS 모형’

본 교안은 켈러의 ‘ARCS 모형’을 기반으로 한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한다. 켈러의 ‘ARCS 모형’은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앞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 주의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전략

1. 교수자료의 제시기법을 다양하게 하기

예) 인쇄물로 된 교수자료를 활용할 경우, 인쇄 자료는 여백두기, 굵은글씨체, 제목 붙이기, 밑줄 치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

2.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기

- ① 교육생은 추상적인 것 보다 구체적인 것에 흥미를 느낌
- ② 일반적이거나 가설적 사건에서의 인간성보다는 '실제의 사람과 사건'에 더욱 흥미를 느낌
- ③ 실물 예
- ④ 비유법

3. 특이한 상황이나 문제사태 제시

- ① 특이한 영상자료나 음성자료 사용
- ② 상반된 결과나 견해제시
- ③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 듣기
- ④ 전문가의 상이한 입장 소개
- ⑤ 참신하거나 역설적인 사건 이용
- ⑥ 개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진술문으로 단원시작

4. 익숙한 경험과 생소한 경험을 동시에 제공

5. 경험요소들을 비유적 방법으로 제시

낯선 것은 친숙한 것으로 친숙한 것은 낯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유 사용

R. 적절성의 유지전략

1. 적절성이란

- ① 학습과제와 학습활동이 교육생의 다양한 흥미에 부합되면서도
교육생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
- ② 교수계획에 있어서 교육생들 각자에게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개인적 요구, 관심,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③ 교육생들의 과거 학습경험,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학습하게 될 내용 간에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때 그 학습 내용이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

2. 적절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전략

- ① 새로운 학습과제를 친숙하게 만들기
교육생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함
- ② 교육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초한 실재의 경험 자료를 활용하기
수업의 적절성은 현재 교육생이 지니고 있는 흥미나 관심사에 기초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때 높아지게 됨

- ③ 학습내용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관해 알려주기
교육생들이 자신의 미래나 인생목표로 삼고 있는 관심사와 가치의 종류를 파악해, 학습내용을 그러한 것들과 관련시켜 알려주면 학습에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학습동기가 유발되게 됨
- ④ 수월성의 표준을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교육생은 자신의 성공이 ㉠자기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을 때, ㉡도전할만한 '적절한 모험'이 따르는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그의 성공을 입증해 주는 피드백이 제공될 때, 성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향상됨.

C. 자신감의 형성전략

1. 자심감이란

- ①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될 때 유발됨
- ②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실제의 능력수준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음. 즉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의 능력수준보다는 더욱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음

2. 학습에 대하여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전략

- ① 학습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명세적인 교수목표를 제시해 주면, 교육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지적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지적 도식은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교육생들에게 형성시켜 줌
- ②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학습과제를 계열화하기
- ③ 교육생에게 개인적 학습조절전략 또는 학습자 통제전략을 적용하도록 하기
(예) 학습과제의 계열성에 따라서 학습과제를 선택토록 함
(예) 교육생 자신의 학습속도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생 자신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을 손쉽게 찾게 해주어야 함

S. 만족감의 부여전략

성공적인 학습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학습행위에서의 만족감은 학습자의 자신감, 주의집중, 장기목표와 학습활동과의 관련성 파악 등의 자기 관리 기능 및 인지전략을 개발시켜 줌

1. 수행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학습수행에 대한 결과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교육생들에게 학습된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주요한 방법이며, 그러한 정보는 학습에의 만족감을 갖도록 해줌. 학습한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문제나 모의상황을 제공해 주고, 그 수행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피드백의 제공은 교육생들에게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주게 됨
2.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기
처음에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습과제에 적용하거나 전이될 때에 학습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만족감이 형성되게 됨. 학습자들이 현실세계에 유용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학습자들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됨
3. 과제-외재적 보상보다는 과제-내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협, 감시, 수업에 대한 외재적 평가보다는 언어적 칭찬과 정보제공적인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Teaching Tips

♣ 강의 초반,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Tips

-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반드시 응답을 기다린다.
-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를 적용해서 실제 문제 풀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 대형 강의실의 경우, 좌석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학생들과 수업시간의 문제와 관심사, 과제 진행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한다.(무선 마이크가 도움이 됨)
- 강의실 뒤쪽에 의견함을 두고 수업시간에 대한 비평 등을 적어주도록 요청한다.
- 강의시간 중의 퀴즈와 연습문제 풀이 과정은 평가가 아닌 학습의 기회로 이용한다.
- 학생들에게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가져오게 하고 게시판 등에 붙여둔다.
-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교수자신이 좋은 프리젠테이션 모델이 된다.
- 수업시간 중 상징적인 "coffee break" 시간을 갖는다 : 학생들에게 펜을 내려놓으라고 권하고, 최근의 사건이나 학생들의 관심사 등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
- 영상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 준다 : 토론을 위해 화면을 멈추거나, 몇 개의 프레임만 보여주고 결말을 예측하도록 한다. 초점이 되는 일부분의 프레임만을 다시 돌려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 학생들이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수업시간에 함께 이야기한다.
- 해당과목과 전공분야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 정책이나, 법안의 상정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논의한다.

♣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질문법’ Tips

질문은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교수자가 질문하고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교수자가 대신 답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학생들은 교수자의 질문을 세심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순히 암기한 것을 묻는 혹은 정답이 뻔한 질문을 자주 하여 지루한 강의가 되게 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여 학생들을 힘들게 하거나 포기하게 해서도 안된다. 모든 질문은 의도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질문하는 목적에 맞는 질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질문을 하는 세 가지 이유

① 배운 내용 검토

배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로 암기된 지식을 말하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② 무지의 자각과 탐구의욕의 유발

강의시간에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이론을 응용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어 보게 하는 대신에, 그 순서를 바꾸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를 돋우는 문제를 미리 제시한다.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탐구 의욕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배우게 하고 토론하게 함으로 학생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게 한다.

③ 사고력 신장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 창의성, 기지, 민감성 등과 같은 성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Why 와 How의 질문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예) ◦ 결과나 방법을 어떤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가?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A 공장 전기시스템에 일어난 발화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심장을 이식 받을 환자는 다섯 명인데, 심장은 하나뿐일 경우 어떤 환자한테 그 심장을 이식해야 하며, 왜 그런가?

◦ 실험을 더 잘하기 위해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2)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주의사항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견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① 학생들의 대답이 교수자에 의해 무시되거나 다른 학생들에 의해 비하될 경우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옳지 않은 답을 말할 경우, 옳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보다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하다.
- ② 학생이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 교수자는 "질문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이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 (예: "A와 B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을 하고 옆 사람과 의논할 시간을 준다.
- ③ 학생을 호명한 후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려 하지 않고 호명된 학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만 할뿐이다. 학생들은 언제 본인이 호명될지 몰라 수업시간에 불안 할 수도 있다. 질문은 모든 학생들에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그리고 원하는 학생을 먼저 호명한다. 내성적인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 교수자의 눈을 똑바로 보는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해 보겠냐고 권해본다

♣ 시각 자료 사용 시 유의사항

단조롭고 원고를 읽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지루해 한다. 이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변화와 다양성을 제공하면 학생들의 주의력 끌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청각 자료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강의 시간 75분 동안 계속 OHP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느라 강의실을 어둡게 한 경우
- 가시도(可視度)가 높은 색채사용으로 인해 자료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눈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 경우
- 시각 자료가 단순하고 간결하지 못하고 복잡하여 산만한 느낌을 주는 경우
- 학생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아 혼돈을 주는 경우
- 학생에게 시선을 전혀 주지 않고 시각 자료를 향해서 계속 말하는 경우
- 시각 자료에서 글씨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은 잘 볼 수가 없을 경우

♣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중간점검 Tips

Check point 1. 강의 내용을 잘 조직하여 소개하고 있는가? (강의내용 제시의 명료성과 구조성)	
Check point 2. 강의 내용은 강의 목적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는가?	
Check point 3. 강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가?	
Check point 4. 가장 적합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가?	
Check point 5.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Check point 6. 학생들과 시선을 많이 마주치고 있는가?	
Check point 7.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가?	
Check point 8. 학생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가능한 자주 토의하고 있는가?	

III. 교 안

◎ 전체 교육내용 구성 (총 3시간)

단계	주요 교육 내용 / 방법	교수자료	시 간
도 입	- 주의집중, 동기화시키기 - 수업소개, 목표제시, 수업개요 제시 - 사전검사 실시하기(OX퀴즈)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수업목표, 사전검사 O,X퀴즈)	10분
전 개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개념, 예 제시 - 인권의 역사, 관련 기구 설명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차트) -기관관련 자료	15분
	II.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 구금시설에서 인권의 필요성 - 구금관련 인권쟁점의 개관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10분
	[소그룹 토론] 7-8명씩 그룹을 나누어서 각 조에 배부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인권과 관련된 쟁점을 토론함	사례가 적혀 있고 토론 내용을 간단히 적을 수 있는 A4 시험지	25분
	1. 물리력 사용 - 계구 사용,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 등에 대하여 앞에서 나누었던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직무지침 제시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직무지침 차트)	15분
	2. 징벌 - 징벌의 종류와 사유 및 부과원칙		15분
휴 식 (10분)			
	3. 건강 - 의사에 대한 접근성, 진료 및 치료 의무, 교정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문제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인권관련 자료, 직무지침차트)	15분
	4. 외부교통과 권리규제 - 서신발송제한 - 도서반입과 검열 - 집필권 제한 - 정보공개청구		15분
	5. 차별 및 기타 -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 교도작업 관리 의무, 수용자 이송의 한계		10분
심 화	- 여러 관련 사례 구별, 적용하기 - 질의 응답하기	파워포인트사례자료 기사, 관련자료	25분
정리 평가	- 요약정리 - 사전검사(O,X퀴즈)해설 - 강의 평가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정리요약차트, 퀴즈 피드백), 강의평가지	15분

◎ 전체 교육내용 구성 (총 2시간)

단계	주요 교육 내용 / 방법	교수자료	시 간
도 입	- 주의집중, 동기화시키기 - 수업소개, 목표제시, 수업개요 제시 - 사전검사 실시하기(OX퀴즈)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수업목표, 사전검사 O,X퀴즈)	10분
전 개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개념, 예 제시 - 인권의 역사, 관련 기구 설명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차트) -기관관련 자료	15분
	II.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 구금시설에서 인권의 필요성 - 구금관련 인권쟁점의 개관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10분
	1. 물리력 사용 계구 사용,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 등에 대하여 앞에서 나누었던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직무지침 제시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인권관련 자료, 직무지침차트)	15분
	2. 징벌 징벌의 종류와 사유 및 부과원칙		15분
	3. 건강 의사에 대한 접근성, 진료 및 치료 의무, 교정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문제		15분
	4. 외부교통과 권리규제 - 서신발송제한 - 도서반입과 검열 - 집필권 제한 - 정보공개청구		15분
	5. 차별 및 기타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 교도작업 관리 의무, 수용자 이송의 한계		10분
정리 평가	- 요약정리 - 질의응답하기 - O,X퀴즈 해설 - 강의 평가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정리요약차트, O,X퀴즈 피드백) 강의평가지	15분

◎ 전체 교육내용 구성 (총 1시간)

단계	주요 교육 내용 / 방법	교수자료	시 간
도 입	- 주의집중, 동기화시키기 - 수업소개, 목표제시, 수업개요 제시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수업목표)	5분
전 개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 구금시설에서 인권의 필요성 1. 물리력 사용 - 계구 사용,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 등에 대하여 앞에서 나누었던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직무지침 제시.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설명자료, 인권관련 자료, 직무지침차트)	15분
	2. 징벌 징벌의 종류와 사유 및 부과원칙		15분
	3. 건강 의사에 대한 접근성, 진료 및 치료 의무, 교정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문제		15분
정리, 평가	- 요약정리 - 질의응답하기 - 강의 평가	파워포인트강의자료 (정리요약차트) 강의평가지	10분

Ⅳ. 도 입

1. 교육목표

- 1) 교육생들이 본 주제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 2) 교육생들이 본 수업의 목표를 정확히 알도록 한다.
- 3) 사전검사(O,X 퀴즈)를 통해서 강사가 교육생들의 전반적인 사전지식을 파악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주의집중, 동기화
 - 인권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킨다.
- 2) 수업의 필요성 제시
 -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면서 수업의 가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 3) 수업목표 알리기
 - 수업목표를 제시하여 앞으로의 내용을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4) 사전검사 실시
 - O, X퀴즈를 제시하면서 교육생들의 사전 지식을 점검한다.

3. 교육시간

10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수업목표 자료, 사전검사 퀴즈)

5. 교육시 유의사항

- 1)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과 교육상황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흥미유지 방법을 택한다.

- 2) 교육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교육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입과 평가 방법을 택한다.

6. 강의내용 및 자료

◎ 주의 획득하기

① 주의집중, 동기화 ☞ 교육생 동기화 전략

상반된 결과나 견해 제시하고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 듣기
개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진술문으로 단원 시작하기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인가?

vs. 교도관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인가?”

사 례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앞에 있는 한 두 명의 교육생에게
질문을 하여 의견을 듣는다)

② 수업의 필요성 제시

학습내용의 관련성, 가치와 필요성에 관해 알려주기
피드백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시켜서 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학습에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인다.

(※교육생들의 직책, 업무, 특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알아서 그러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한다)

● 수업목표 알리기

③ 수업목표 알리기 [강의자료 #2 제시]

강의자료에 있는 수업목표를 하나씩 읽으면서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한다.

교육생들이 앞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학 습 목 표

- 1) 교정 공무원들이 인권의 개념과 유형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현 교정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알도록 한다.
- 3)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 4) 교정과 관련된 인권 직무 지침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자료 #2]

● 선수학습 회상 자극하기

④ 사전검사 실시하기 [강의자료 #3, #4, #5 제시]

O,X 퀴즈 7문항을 차례대로 제시하면서 교육생들에게 하나씩 질문한다.



O X 퀴즈(1)

1. 도주 내지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에게는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징벌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없다. ()
3.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갈 때, 사복착용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

[강의자료 #3]



O X 퀴즈(2)

4.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의 경우 매일 1회, 수형자의 경우 매월 4회로 제한되지만, 수용자의 서신발송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5. 구금시설의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강의자료 #4]



O X 퀴즈(3)

6.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7.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이나 도서의 구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거실에서 집필을 할 수도 있다. ()

[강의자료 #5]

☞ 교육생 수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서 평가문항을 질문을 하고 교육생들이 손을드는 형식으로 진행함.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몇몇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음

선택적 지각
사전평가

강의자료를 보고 한 문항씩 읽은 다음, O와 X로 나누어서 손을 들어보라고 해서 전반적인 교육생들의 사전지식을 알도록 한다.

추가로 몇몇 학생들에게 그렇게 답한 이유를 질문하여,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할 수 있다.

피드백

O, X 퀴즈의 해답은 지금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해나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V. 전 개

I. 인권이란 무엇인가

1. 교육목표

- 1) 인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인권의 유형들을 알고 특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인권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현대 인권 운동의 시발점과 국제기구, 국제인권 NGO의 역할을 안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인권개념 설명, 예 제시
 - 인권의 의미와 3가지 중요한 특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 2) 인권의 유형 제시
 - 인권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여러 가지 적절한 예를 들며 설명한다.
- 3) 인권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 현재 국가 인권 기구 설명
 - 인권의 역사에 대하여 시대별로 정리한 플로차트와 설명 자료를 차례대로 보면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한다. 국제인권NG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실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1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설명자료, 차트), 또는 국제기관 관련 자료

5. 교육시 유의사항

- 1) 교육생들의 배경지식과 직책, 연령에 따라서 설명하는 시간과 방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 2)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최근 동향과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한다.
- 3) 국제 인권 기구와 NGO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도록 적절한 사건 및 사례를 들어 소개를 할 수도 있다.

6. 강의내용 및 자료

◎ 자극 및 학습안내 제시하기

① 인권의 개념

☞ 개념 제시 전략

새로운 자극(학습내용)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지적하기
도식화된 안내를 통하여 정보의 통합과 기억을 돕기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 제시

일반성

[강의자료 #6 제시]

인권개념의 3가지 결정적인 속성을 제시한다.

학습안내제시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의미

(1) '국권(國權)'보다 앞선 것

(2) '보편적' 의미

(3) 권리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

[강의자료 #6]

결정적 속성 구별
변별을 도움

[강의자료 #7 제시]
개념의 일반성을 설명



(1) '국권(國權)'보다 앞선 것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국권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인권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음

[강의자료 #7]

인권개념의 결정적인 속성중 '국권'을 관련시켜서 설명한다.

예 제시
(선택)

국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설명한다.
국권 vs. 인권 대립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인권이 앞서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인권 문제로 다른 나라 내정 개입이 가능함을 예 든다.

결정적 속성 구별
예 제시

[강의자료 #8 제시]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 의미로 알려진 권리 등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다.



(2) '보편적' 의미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인신과 생명을 지킬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등은 보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인권임

[강의자료 #8]

결정적 속성 구별
예 제시

[강의자료 #9 제시]

두 가지 권리들 사이에서 충돌 가능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3) 권리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

- 어떤 권리는 인정하고 다른 권리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
- 예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vs. 국가의 공공질서와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강의자료 #9]

② 인권의 유형

[강의자료 #10 제시]

학습안내 제시

도식화된 안내를 통하여 정보의 통합을 돕는다

인권은 'human rights' 복수형 - 인권이 유형이 다양함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절충적 유형으로 인권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 인권의 유형

- 1)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 2) 법적 권리(legal rights)
-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4) 차별받지 않을 권리(non-discriminatory rights)
- 5)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
- 6) 선언적 권리(declaratory rights)

[강의자료 #9]

결정적 속성 구별 예 제시	6가지 다른 유형의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결정적 속성과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설명 한다
속성 설명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지시하면서 속성 설명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에 초점 - 국가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지칭 법적 권리를 -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 -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기본적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원칙 강조 집단적 권리 선언적 권리
질 문	교육생들에게 각 유형의 예로 생각하고 있는 권리들을 질문 한다. 처음에는 강사가 몇 가지 예를 먼저 들고 그 다음 교육생들의 반응을 유도한다.
피드백 예 제시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사법부, 인신보호, 소급입법 방지, 사생활 보호’등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예로 제시한다.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로 제시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 의견표명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등을 예로 제시한다.

③ 인권의 역사와 국가 인권기구

🌀 개념 제시 전략

도표나 부연설명하기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일반성 획득을 촉진한다.

알고리즘으로 일련의 단계를 제시하여 결정적 속성들을 이해시킨다.

일반성

[강의자료 #11 제시]

❖ 인권의 역사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 근대적 인권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사건
- 인간을 봉건제의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게 만들
- 휴머니즘과 계몽주의는 인권의 모태가 됨

[강의자료 #11]

주의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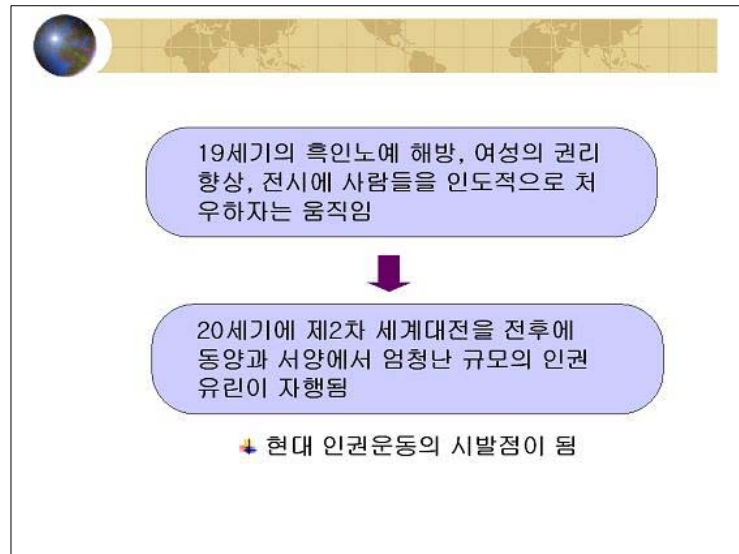
인권의 역사에 대하여 주의집중 시키고 주요 용어와 결정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단계적인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주의집중 시킨다.

변화이해

8, 19, 20세기의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을 이해시키고, 현대 인권운동의 시발점을 설명한다.

[강의자료#12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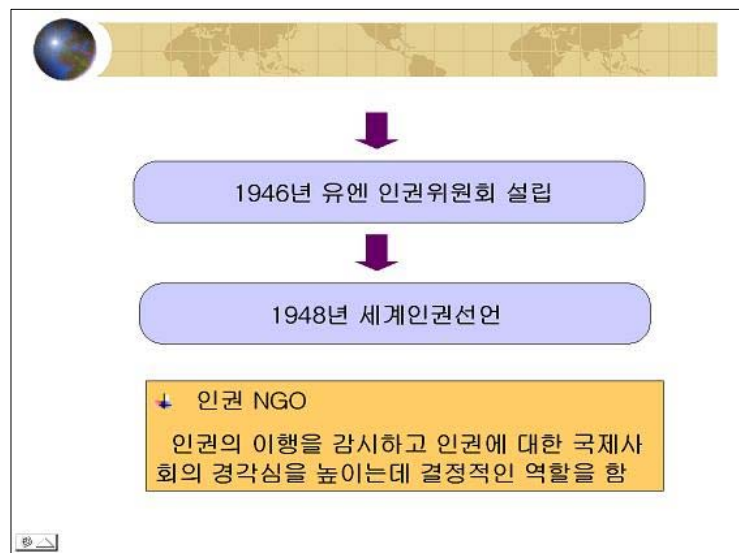
[강의자료 #12]

기능 이해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NGO의 설립 배경과 그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강의자료#13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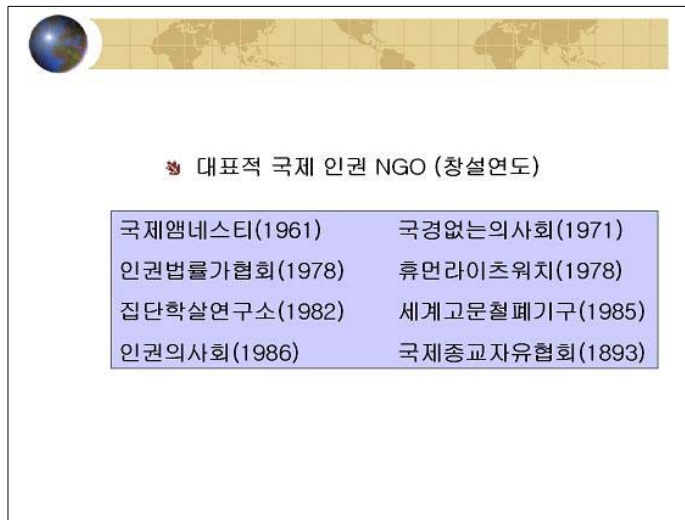


[강의자료 #13]

사 례 국제 인권 NGO와 국가 인권 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구체적 자료 제시 대표적인 국제 인권 NGO와 그 역할을 설명한다.

[강의자료#14 제시]



대표적 국제 인권 NGO (창설연도)

국제앰네스티(1961)	국경없는의사회(1971)
인권법률가협회(1978)	휴먼라이츠워치(1978)
집단학살연구소(1982)	세계고문철폐기구(1985)
인권의사회(1986)	국제종교자유협회(1893)

[강의자료 #14]

기관 관련 자료 제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01) 설립배경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 각종 인권NGO들의 오랜 노력과 활동, 한국의 민주주의 진행, 국제적 추세, 국제인권운동에 영향 받음
- 인권을 국정 전반에서 실현할 의무

[강의자료#15, #16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화면을 보여주고 주소 알려 준다. <http://www.humanrights.go.kr>



[강의자료 #15]



진정 접수 및 조사 구체 안내 화면

[강의자료 #16]

II.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1. 교육목표

- 1) 구금시설의 특성과 인권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구금시설에서 올바른 인권의식의 필요성을 알도록 한다.
- 3) 앞으로 제시될 구금 관련 인권 쟁점들에는 무엇이 있는 지 말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구금시설과 인권에 대한 주의집중
(※ 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소재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음)
 - ‘일급살인’이라는 영화를 제시하면서 구금시설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구금시설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교육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킴
- 2) 구금시설에서 인권의 필요성
 - 구금시설에서 인권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 3) 구금관련 인권 쟁점 5가지 제시
 -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로 5가지 인권 쟁점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쟁점들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함

3. 교육시간

10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영화자료, 차트)

5. 교육시 유의사항

- 1) 영화 등에서 비춰지고 있는 교도관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교육생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영화를 통한 한 일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2) 파워포인트 그림을 제시하면서 5가지 인권 쟁점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서 교육생들이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6. 강의내용 및 자료

◎ 주제에 대해 주의집중 시키기

- ① 구체적 예(영화)를 통해 주제에 대한 관심, 이해 갖도록 하기

[강의자료#17 제시]



II. 구금과 관련된 인권쟁점



🚩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감옥 "엘카트래스"를 폐쇄시켰던 "헨리 영"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독방 안에서 산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교도소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 헌신했던 한 양심적인 변호사의 이야기.



[강의자료 #15]

☞ 동기유발 전략

‘실제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구금시설의 인권 의식에 대하여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함

- ② 반응 유도하기

영화를 본 교육생이 있는지 질문하고, 몇 사람을 지적하여 어떤 느낌이었는지 의견을 말해보도록 함.

[영화소개]

· 일 · 금 · 살 · 인 ·

1938년 3월, 샌프란시스코의 검푸른 심연에 뿌리를 박은채 우뚝 솟은 한 이름없는 바위섬, 바로 그 곳에 '엘카트래스'란 이름의 감옥이 위치한다. 나체의 한 남자가 5피트 깊이의 지하 감방에 던져진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헨리 영. 그는 동생을 위해 단돈 5달러를 훔친 죄명으로 이 지하 감방에서 3년 동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 1941년 6월, 마침내 그는 엘카트래스의 지하 감방에서 벗어나 몇 시간 후, 햇빛 가득한 교도소 식당에서 자신을 그런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200명의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를 살해한다. 이 단순한 보복 행위로 인해, 헨리 영은 일급살인죄로 기소된다. 그의 변호를 맡은 24세의 젊은 관선 변호사 제임스 스탬필. 제임스는 헨리 영이 지난 3년 동안 지하 독방에서 비인간적이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제임스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헨리를 지하 감방에 가두게 한 장본인은 교도소 부소장 글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엘카트래스와 연방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제임스의 애인이며 여성 변호사인 매리는 전도유망한 제임스의 장래가 걱정되어 그를 이 사건에서 보호하려고 한다. 재판은 크로스 판사가 맡게 되고 제임스의 형 바이론의 반대가 심해지는데...

(※ 강사가 본 영화 외에 다른 영화를 소재로 하여 강의를 이끌어갈 수 있음)

● 학습자극 제시하기

① 구금시설의 인권

현황 제시

실제 인권업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나 인권단체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구금시설 관련 사안들임.
(과도한 징벌, 비합리적인 물리력 행사, 차별적 대우, 적절한
처우의 부재, 수용자간의 폭력 사용 등)

전반적인 인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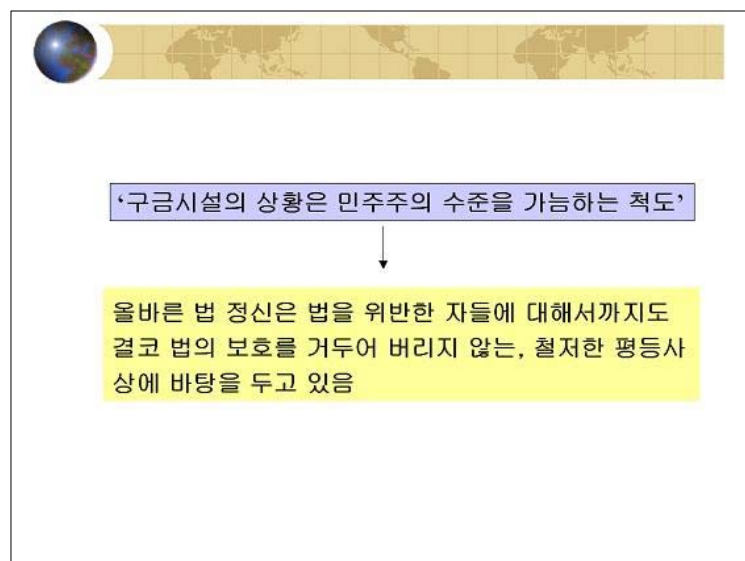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라는 응보형,
“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통념

② 인권교육의 필요성

- 책임자와 상급자의 의식
- 적절한 규정이나 절차 부족
- 적법절차와 온정주의의 혼동
- 법집행 공직자의 의식

③ 구금시설과 민주주의의 관련성

[강의자료 #18 제시]



[강의자료 #18]

● 학습안내 제시하기

* 구금관련 인권 쟁점 그림 제시

학습안내 제시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로 5가지 인권쟁점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배경 제시	5가지 인권 쟁점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 구금시설내의 인권 쟁점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거론되는 아이템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물리적 사용과 징벌 관련 사항이 두드러지게 쟁점의 선두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용자의 건강 문제가 핫이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 개요 파악	교육생들이 5가지 구금관련 쟁점들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한다.

[강의자료#19 제시]



[강의자료 #19]

[인권 사례에 대한 소그룹 토론]

(※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본 토론과정을 제외하고, 각 사례들을 5가지 인권 쟁점 강의에 각각 삽입해서 예로 제시한다)

1. 교육목표

- 1) 여러 가지 구금관련 인권 쟁점 사례들에 대하여 소그룹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각 사례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그 근거들을 팀끼리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3) 소그룹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팀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소그룹 나누기
 - 교육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의자를 돌리거나 몸을 이동해서 7-8명씩 그룹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 2) 팀장 정하기
 - 강사가 각 팀에서 한 사람씩 무작위로 지적하여 팀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는 각 팀에서 팀장을 정하도록 한다.
- 3) 사례 나누어주기
 - 사례가 2개씩 제시되어 있는 종이를 팀원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다.
- 4) 소그룹 토론 실시하기
 - 배부된 종이에 있는 2개의 사례들을 팀원들이 읽고 각 사례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팀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토론을 이끌어나간다. 또한 팀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사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팀장은 토론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사례 아래의 빈 칸에 기록하도록 한다.

5) 토론 내용 제출하기

- 토론을 약 20분간 실시한 후, 팀장이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강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교육시간

2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사례가 2개씩 적혀있고 토론 내용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는 A4 시험지 100장 (학생들의 수만큼 준비함)

1 조

조원이름 :

< 사례 1 >

강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A 교도소에 수감된 갑은 교도소장에게 공손히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받자 욕설과 폭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 수용자가 자기에게 별명을 부르며 놀리자 그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교도관 을은 갑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양 손목과 어깨를 묶은 다음 독거실에 격리수용 하였는데, 3일이 지난 후 갑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자살하였다. 여기서 과연 독거실에 수용한 후 3일 동안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할까?

< 사례 2 >

재소자 갑은 교도관 을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신청, 면담 신청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던 갑은 을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욕하지 말라고 심한 말로 응수하였다. 이로 인해 갑은 1개월의 징벌(금치)을 받았다. 이후 을에게 “왜 웃느냐, 당신이 도대체 나를 아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은 추가로 2개월의 징벌(금치)을 받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징벌의 부과는 과연 적법한가?

* 각 조에 제시되는 2개의 사례들은 모든 조에 동일한 사례들만 제시해도 된다.

그러나 각 조마다 다른 사례들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각 팀에게 골고루 의견을 나누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강사는 토론 후의 강의 시간에 5개의 인권 쟁점들에 대하여 더 골고루 교육생들의 의견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A 교도소는 입소 당시부터 난폭한 성격을 보인 갑을 특별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도작업 도중에 동료 수형자 을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교도관 병이 제지하자 갑자기 자해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교도관 병은 교도봉으로 갑에게 몇 차례의 타격을 주면서 체포하려 하였는데, 갑이 뿌리치고 도주하자 경비교도대에 급히 연락하였다. 연락을 받고 달려오던 경비대원 정은 도주하는 갑을 발견하고는 정지시키기에는 갑의 기세가 너무 난폭하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하였다. 갑과 정의 물리력 행사는 적법한가?

<사례 2>

A 교도소는 과실범 갑을 강력범죄자들의 감방에 수용하였는데, 일석점호시 갑이 번호를 잘못 부르자 당직교도관은 동 감방의 수용자 전원을 30여분 동안 세워놓고 번호를 반복하여 부르게 하는 등 단체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화가 난 수용자들은 점호가 끝난 후 당직교도관의 감시를 피하여 은밀하게 갑을 집단폭행 하였고, 그 결과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사망에 대해 교도소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할까?

<사례 1>

A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갑은 조적공장에 출역하여 작업을 마친 후 작업용 장갑을 가지고 들어오려다 검신담당 교도관 을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을은 장갑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갑이 불응하고 항의하자 갑의 하퇴부를 수 차례 가격하면서 장갑을 빼앗았다. 아울러 다음 날에는 조적공장의 담당교도관인 병이 갑에게 전일의 사건에 대해 주의를 주었는데 또 다시 갑이 항의하자 병은 호통을 치며 갑의 뺨을 때렸다. 이 사안에서 교도관이 행한 제재조치는 적법한가?

<사례 2>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재소자 갑은 동료재소자 을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을은 (형사)기소되었다. 그런데 갑은 을이 자신이 수용되어 있던 병사(病舍)까지 찾아와 협박하였고, 을을 대동한 교도관 병은 - 갑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장과 보안과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하자 큰 소리로 다시 강하게 소장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은 조사실에 수용되었다. 조사가 지체되어 갑은 9일 동안 조사실에 있었다. 그리고 징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별결정이 내려졌고, 갑은 이에 따라 3일 동안 징별실에 수용되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병사로 보내졌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징별(조사) 절차상의 위법은 없었는가?

<사례 1>

여자수형자인 갑은 갑자기 손톱과 발톱에 피멍이 들면서 열이 나고 두통이 발생하였다. 갑은 이 사실을 즉시 교도관에게 알렸다. 그러나 의무실이 남자사동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직접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만이 갑에게 와서 몇 가지 약을 처방해주었다. 그리고 피검사도 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하였다. 갑은 출소하여 병원에 찾아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이 나왔다.

<사례 2>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갑은 교도관이 계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사방에 있던 을로부터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을과 교도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갑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서신 발송을 신청하자, 교도소 당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서면에 동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교도소 당국은, 처우에 관한 불만을 청원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았으며, 위 준비서면의 발송도 불허하였다. 이러한 교도소 당국의 처분은 적법, 정당한가?

<사례 1>

갑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A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교도소 당국은 신입수용자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갑녀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흉기 및 반입금지물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특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조사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수회 반복시켰다. 이러한 알몸 신체검사는 적법할까?

<사례 2>

수형자 갑은 구외작업장의 칠고작업실에서 옷칠 등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사건 당일에는 아침부터 칠고작업을 약 1시간가량 하던 중 목재절단 작업의 부족한 원을 보충하기 위해 목재 절단작업 파트로 차출되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둥근 기계톱으로 목재절단작업을 하던 중 장갑을 낀 손으로 기계톱에 쌓인 톱밥을 제거하다가 작동중인 기계톱에 오른손 제2, 3, 4, 5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갑의 부상에 대해 교도당국은 책임을 져야 할까?

5. 교육시 유의사항

-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각 조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들어보고 잠깐씩 코멘트를 주거나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6. 강의내용

1) 소그룹 나누기

- ▶ 교육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의자를 돌리거나 몸을 이동해서 7-8명씩 그룹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 ▶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만들지 못할 경우, 강사가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지정해 준다.

2) 조장 정하기

- ▶ 강사가 각 조에서 한 사람씩 무작위로 지적하여 조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는 각 조에서 조장을 정하도록 한다.

3) 사례 나누어주기

- ▶ 사례가 2개씩 제시되어 있는 종이를 조원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다.
- ▶ 조장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자기 조의 사례지 7-8장을 가지고가서 조원들에게 나누어준다.

4) 소그룹 토론 설명하기 / 토론 실시하기

- ▶ 배부된 종이에 있는 2개의 사례들을 조원들이 읽고 각 사례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조장은 조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토론을 이끌어나간다.
- ▶ 조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사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 조장은 토론내용 중 중요한것들을 사례 아래의 빈칸에 기록하도록 한다.

5) 토론 내용 제출하기

- ▶ 토론을 약 20분간 실시한 후, 조장이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강사에게 한 장씩 제출하도록 한다.

1. 물리적 사용

1. 교육목표

- 1) 계구사용의 목적, 필요성, 사용 한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의 요건, 절차, 한계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 3) 재소자간 폭행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4) 교도관의 폭행 금지와 다른 방법들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사례 제시, 토론 내용 확인하기
- 2) 사례에 대한 설명
- 3) 교정규칙과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 4) 강제력 행사와 무기사용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5) 재소자간 폭행방지에 대한 인권 직무지침 제공
- 6) 교도관의 폭행 금지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3. 교육시간

20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설명자료, 직무지침 그림)

5. 강의내용 및 자료

1) 사례 제시, 토론 내용 확인

- ▶ 계구사용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강의자료#20 제시]
사례를 읽은 후, 이전 소그룹 토론에서 조에서 나누었던 토론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사가 읽어준다.

“00조에서는 이 사례에 대하여 _____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_____”

- ▶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해준다.



1. 물리력 사용

■ 사례

수형자 갑은 교도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료 수용자와 몸싸움을 해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양 손목과 어깨가 묶여져서 독거실에 격리수용 됨. 3일이 지난 후 수형자 갑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자살함

독거실에 수용한 후 3일 동안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할까?

[강의자료 #20]

2) 사례에 대한 설명

- ▶ 본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적법주장의 논리,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자료#20 제시]



1. 물리력 사용

■ 사례

수형자 갑은 교도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료 수용자와 몸싸움을 해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양 손목과 어깨가 묶여져서 독거실에 격리수용 됨. 3일이 지난 후 수형자 갑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자살함

독거실에 수용한 후 3일 동안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할까?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3일 동안이나 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

별다른 안전위험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계구의 지속적 사용이 적법한 것인가?

●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법 주장의 논리

우선 갑은 동료수형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자해행위까지 시도했으므로, 교도관 병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교도봉을 사용한 것은 행형법 제 14조의 2에 근거한 적법한 강제력 사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경비대원 정의 총기사용도 갑이 도주를 계속하고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입소당시부터 난폭한 성격을 보인 갑이 무슨 일을 저지룰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라리 총기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이 여타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논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여러 가지 점에서 갑이 중대한 규율위반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치명적인 물리력의 행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행형법은 교도관이 강제력이나 총기를 사용함에는 필요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과연 위 사안에서 이러한 제약원칙이 준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경비대원 정의 총기사용에는 이러한 의문이 더 강하게 제기된다. 총기사용 이외의 제지방법이 강구되지 않았고, 갑에 대한 사전경고도 없었기 때문이다.

3) 계구 사용과 관련된 교정규칙과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 계구 사용과 관련된 교정규칙,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형관련 법규는 계구사용의 목적과 요건, 그리고 한계를 법정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필요성과 상당성을 허용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계구사용이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계구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점, 나아가 교정사고의 위험이 제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구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소위 ‘비례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판례가 특단의 사유 없는 장시간의 계구사용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계구사용의 제약이라고 하겠다

▶ 계구사용의 목적, 필요성, 한계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1 제시]

◎ 계구사용의 목적

계구사용은 계호의 일종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계호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즉, 수용자가 타인 혹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선진 각국의 행형법뿐 아니라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동 규칙 §33)에도 명정되어 있는 바이다.

◎ 필요성

계구는 다른 계호방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계구사용의 필요성 여부는 계속 심사되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고 교정사고의 위험이 제거된 경우에는 즉시 계구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계구사용의 한계

계구는 수용자에게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계호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시간이 인도적 관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사슬과 차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33), 그 이외의 계구도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34). 아울러 우리나라 판례 역시 소년수용자에 대한 27시간 동안의 계구사용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시간의 계구사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강의자료 #21]

4) 강제력 행사와 무기사용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강제력 행사와 무기사용과 관련된 교정규칙,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행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실행에 관련된 경우와 도주 시도의 경우를 중심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한계로서는 사전경고와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제력과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행형법의 기본 방향인 것이다.

- ▶ 강제력 행사와 무기사용의 요건, 절차, 한계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2 제시]

◎ 실행의 요건

강제력이나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수용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도주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행형법은 그 이외에 수용자가 구금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건물·기기 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최저기준규칙과 비교하여 볼 때, 동 요건은 보다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기의 사용을 더욱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도주의 경우에 행형법이 단순한 도주시도가 아니라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다.

◎ 절차와 한계

강제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경고 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형법은 무기를 사용한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시행령은 이를 강제력의 사용에도 준용하고 있다. 최저기준 역시 강제력 행사의 사실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력과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여타의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때에는 강제력과 무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보다는 강제력 사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강의자료 #22]

5) 재소자간 폭행방지에 대한 인권 직무지침 제공

- ▶ 재소자간 폭행방지의 중요성, 사전예방, 사후처리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3 제시]

◎ 사전 예방

재소자간의 폭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거수용시 죄질이 현격히 다른 수용자들은(예를 들어, 강력사범과 과실범) 가능하면 분리하고, 둘째,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공격에 취약한 수용자들 역시 격리수용하며, 셋째, 구금시설 내에서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감시하며, 넷째, 재소자들간에 개발된 은밀하고도 기술적인 공격패턴을 철저히 포착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들의 폭력행사가 부쩍 증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관들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재소자간 폭행의 사전방지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 사후 처리

재소자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부과와 형사처리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상적인 다툼 수준의 경미한 폭행에 대해서는 징벌이나 형사처리보다 당사

자의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제재는 상대 재소자에 대한 원한을 불러 일으켜서 향후 더 큰 폭행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강의자료 #23]

6) 교도관의 폭행 금지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교도관의 폭행 금지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3 제시]

◎ 체벌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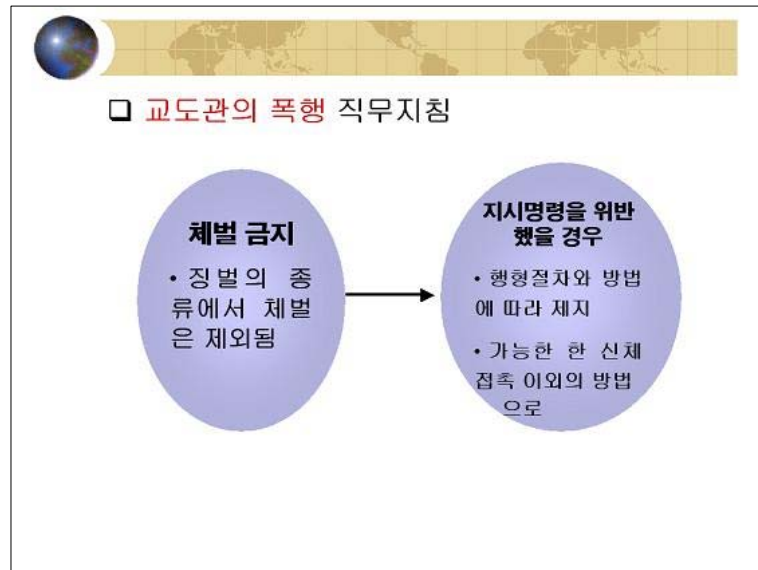
행형법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로서 경고, 도서열람 제한, 청원작업 정지, 작업상여금의 삭감과 금지만을 규정할 뿐, 체벌은 제외하고 있다.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에 대한 위해를 금지하는데, 동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형, 암실에 수용하는 징벌 및 모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최저기준규칙 §31)

◎ 지시명령 위반 수용자에 대한 조치

지시명령 위반 수용자에 대하여는 행형법규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지해야 하는 것이지 구타 등과 같은 폭행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가능하면 신체적 접촉 이외의 방법으로 규율위반 재소자를 제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교정국은 첫째, 여러 명의 교도관이 현장에 집결하여 숫자의 면에서 위압을 주는 방법, 둘째, 대상 수용자와의 언어적 대결에서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 셋째, 물리적 행사를 경고함으로써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강의자료 #24]

2. 징 별

1. 교육목표

- 1) 징벌의 종류의 사유 및 부과원칙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 2) 징벌(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3) 징벌(금치)의 집행에서 기간의 제한, 피처분자의 건강보호, 계구 오·남용 금지에 대한 지침들을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징벌의 종류와 사유, 징벌부과원칙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2) 징벌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3) 징벌(금치)의 집행에 대한 인권 직무지침 제공

3. 교육시간

1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 (설명자료, 직무지침 그림)

5. 강의내용 및 자료

- 1) 징벌의 종류와 사유, 징벌부과원칙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징벌의 종류와 사유, 징벌 부과원칙과 관련된 교정규칙,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징벌부과의 원칙과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될 수 없다(일사부재리원칙).

그러나 예컨대 동료재소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이른바 '형법규정저촉'으로 징벌을 받은 자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또 다시 형벌을 부과 받는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징벌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제재수단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벌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 2) 징벌은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

행형법 제48조의2에 규정된 '징벌집행의 유예'는 이러한 취지를 더욱 살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 3)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징벌양정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정형화원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4조는 각종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의 종류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징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징벌부과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징벌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 ▶ 징벌의 종류와 사유, 징벌 부과원칙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5 제시]

◎ 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행형법 §46 ②)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1조는 "체벌과 암실구금, 그리고 모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치욕적인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 규칙 제29조는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기간"은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정하여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법률(행형법)로 5가지 징벌의 종류와 그 기간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된 5가지 징벌 이외의 어떤 제재수단도 징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 징벌 사유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행형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소자가 청원이나 진정을 했는지 교정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교도관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내세워 -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징벌부과원칙

우리 행형법 제46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7조도 "규율과 질서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제한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과잉금지(비례성)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의 종류와 기간은 수용목적에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그와 같은 징벌의 부과 이외에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수용질서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한다. 특히 금치는 가장 강력한 징벌수단이므로 가급적 수용질서확립의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징 벌

□ 징벌의 종류와 사유 및 부과의 인권적무지침

- 징벌의 종류 :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치욕적인 제재수단은 결코 징벌로 사용될 수 없다.
- 징벌 사유 : 사적 보복감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징벌부과원칙 : 징벌은 수용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강의자료 #25]

2) 징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권적무지침 제공

- ▶ 징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교정규칙,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징벌혐의자의 조사실수용은 이해관계인(예: 싸움을 한 동료재소자, 규율위반 행위를 적발한 교도관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공정한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함이지, 징벌(금치)의 단계로 가기 전에 의례적으로 들러 징벌실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징벌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즉 징벌위원회의 징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재소자도 조사과정에서 일단 ‘무죄’추정을 받아야 한다. 징벌혐의자를 조사할 때 고문을 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금지됨은 당연하다.

- ▶ 징벌의 공정성, 신속성, 기회보장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26 제시]

◎ 조사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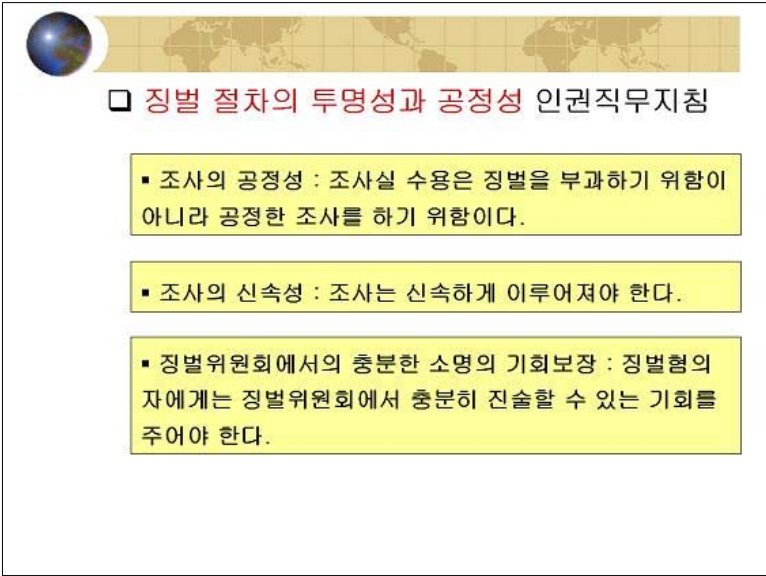
별도의 사무실(조사실)에 징벌혐의자를 수용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조사실을 마치 징벌실과 같이 악용해서는 안 된다. 즉, 조사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징벌혐의자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조사의 신속성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체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안 된다. 조사기간의 장기화는 징벌혐의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며, 장기간의 조사실 수용은 징벌혐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 징벌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소명의 기회보장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2항 제1문은 "피구금자는 누구든지 징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규율위반혐의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의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징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인권직무지침

- 조사의 공정성 : 조사실 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 조사의 신속성 :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징벌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소명의 기회보장 : 징벌형의 자에게는 징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강의자료 #26]

3) 징벌(금치)의 집행에 대한 인권 직무지침 제공

- ▶ 징벌(금치) 기간의 제한, 피처분자의 건강보호, 계구 오·남용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자료#27 제시]

◎ 금치기간의 제한

2개월을 초과하는 금치의 집행은 위법이다. 연속적인 금치의 집행으로 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 피처분자의 건강보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독방구금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진찰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행형법 제48조 제1항에도 징벌을 받는 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계구 오·남용의 금지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3조 제1항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행형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 징벌(금치)의 집행 인권적무지침

- 금치기간의 제한 : 금치기간은 2개월을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피처분자의 건강보호 : 금치의 처분을 받는 자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상시로 받아야 한다.
- 계구 오·남용의 금지 :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안 된다.

[강의자료 #27]

3. 건 강

1. 교육목표

- 1) 의사에 대한 접근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2) 진료 및 치료 의무를 정확히 알도록 한다.
- 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 문제의 중요성을 알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관련 기사 제시, 주의집중 시키기
- 2) 사례 제시, 토론 내용 확인하기
- 3) 사례에 대한 설명
- 4) 건강 관련 규칙과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3. 교육시간

1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설명자료, 직무지침 그림)

5. 강의내용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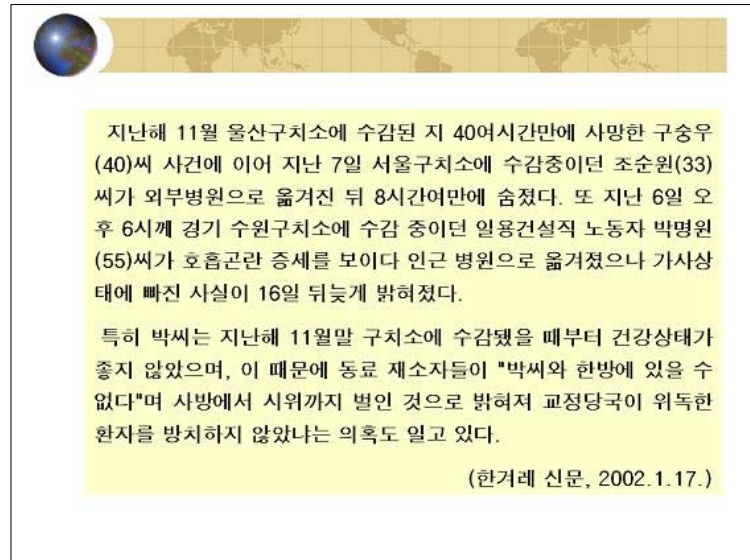
1) 관련기사 제시, 주의집중 시키기

- ▶ 구금시설에서 건강과 관련된 실제 기사를 제시하여 주의집중 시킨다.

[강의자료#28 제시]

- 휴식을 통해 흐트러진 분위기를 전환하여 바꾸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 실제 사건을 통해서 구금시설의 인권의식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 본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몇 명의 교육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



[강의자료 #28]

2) 사례 제시, 토론 내용 확인하기

- ▶ 구금시설에서 건강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강의자료#29 제시]

사례를 읽은 후, 이전 소그룹 토론에서 조에서 나누었던 토론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사가 읽어준다.

“00조에서는 이 사례에 대하여 _____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_____”

- ▶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해준다.



3. 건강

■ 사례

여자수형자인 갑은 갑자기 손톱과 발톱에 피멍이 들면서 열이 나고 두통이 발생했음. 그러나 의무실이 남자사동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만이 와서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음. 갑은 출소하여 병원에 찾아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이 나왔음.

[강의자료 #29]

3) 사례에 대한 설명

- ▶ 본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적법주장의 논리,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자료#29 제시]

● 생각해볼 수 있는 적법 주장의 논리

재소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고, 지속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들을 돌볼 의료진은 너무 적은 것이 우리의 교정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소 당국이 모든 재소자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더욱이 피병도 적지 않은 재소자들의 진료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도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구금시설 의료인력의 부족은 교도소 당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재소자의 건강보호는 재소자 인권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부족만을 이유로 교도소 당국이 의료해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의무실이 남자사동에 있다는 이유로 여자재소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진료가 제한을 받는다면 야간이나 주말에는 의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독한 재소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재소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건강

■ 사례

여자수형자인 갑은 갑자기 손톱과 발톱에 피멍이 들면서 열이 나고 두통이 발생했음. 그러나 의무실이 남자사동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만이 와서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음. 갑은 출소하여 병원에 찾아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이 나왔음.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재소자의 건강보호는 재소자 인권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부족만을 이유로 교도소 당국이 의료해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

[강의자료 #29]

4) 건강 관련 규칙과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 구금시설의 건강 관련 규칙,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의무관의 고유업무가 있다는 사실은 각 교정시설마다 소속 의무관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비록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행형법과 그 시행령의 ‘위생과 의료’관련 규정은 재소자의 건강보호와 질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인력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교도관직무규칙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지체없이 출근하여 환자를 진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비록 응급환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 재소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주야나 휴일을 불문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금시설에서 의사의 접근성, 진료 및 치료 의무,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30 제시]



□ 건강 관련 인권직무지침

- 의사에 대한 접근성 : 모든 재소자는 어느 때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진료 및 치료의무 : 재소자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 : 교정사고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의자료 #30]

◎ 진료 및 치료 의무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4조 제1문에는 "의무관은 모든 피구금자를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이후에도 진찰을 함으로써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의 발견과 치료는 의무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다른 교도관도 이러한 의무관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교정사고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 문제

교정사고, 특히 재소자간의 싸움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교도소 당국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특히 교도소 당국의 책임을 논정함에 있어서는 교정사고의 단계에서라면 관리책임만이 문제될 뿐이지만 부상치료의 해태까지 첨가된다면 축소 혹은 은폐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정사고는 일단 발생된 후라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바, 특히 부상을 치료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업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외부교통과 권리규제

1. 교육목표

- 1) 서신발송 제한의 전제, 방법, 기준을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도서반입과 검열의 기준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 3) 집필권 제한의 사유와 한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 4)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5) 정보공개청구의 보장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서신발송 제한과 관련된 법규와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 2) 도서반입과 검열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3) 집필권 제한의 사유와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4)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5) 정보공개청구의 보장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3. 교육시간

1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설명자료, 직무지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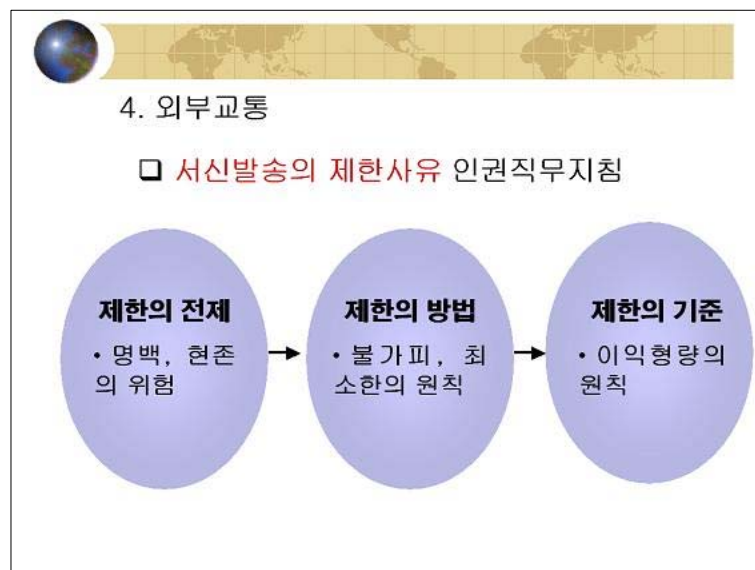
5. 강의내용 및 자료

- 1) 서신발송 제한과 관련된 법규와 예규의 분석, 인권직무지침 제공
-

- ▶ 서신발송 제한 관련 법규, 예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행형법시행령은 서신교환 제한의 사유로 4 가지(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②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③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④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하지만 이 중 ③과 ④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수용자의 서신교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역시, 단순히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신의 내용, 발송경위 등을 비추어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교정질서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신교환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서신발송의 제한 사유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31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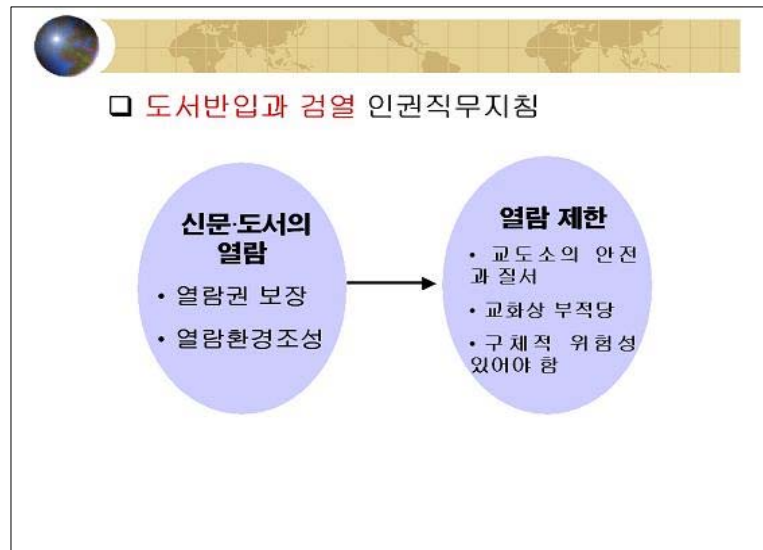


[강의자료 #30]

서신교환은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교환이 수용자 이외의 자보다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하여서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서신교환의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신교환을 제한하는 것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불가피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하며(최소한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도서반입과 검열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도서반입과 검열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히 설명한다.
[강의자료#32 제시]



[강의자료 #32]

실무에서 신문기사 중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사를 삭제하거나, 교정과 관련된 서적, 시사성·이념성이 짙은 서적의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그러나 신문과 도서 열람의 제한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로써,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시사성·이념성이 짙은 도서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이상, 알권리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도서반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교도소 관련 기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이상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3) 집필권 제한의 사유와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집필권 제한 사유 5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씩 설명한다. [강의자료#33 제시]

수용자의 집필권도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권 제한 사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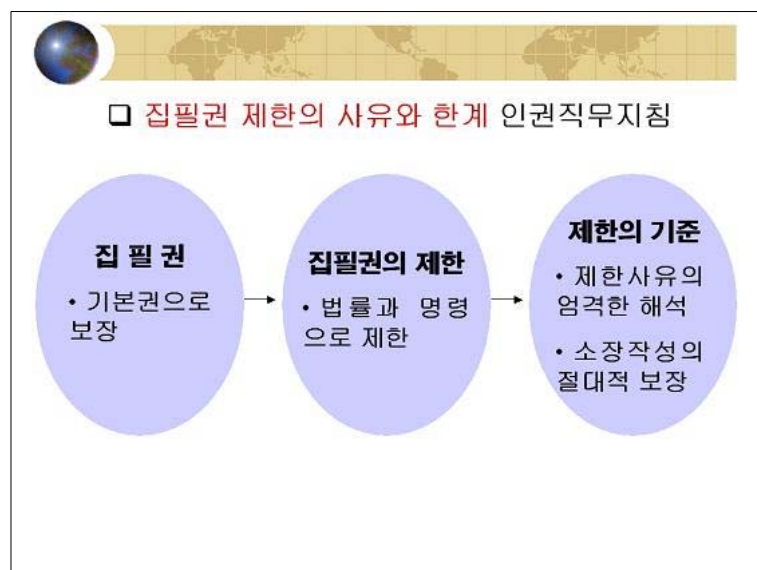


■ 집필권 제한 사유

- ①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 ③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④ 도주, 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 ⑤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강의자료 #33]

▶ 집필권 제한의 사유와 한계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34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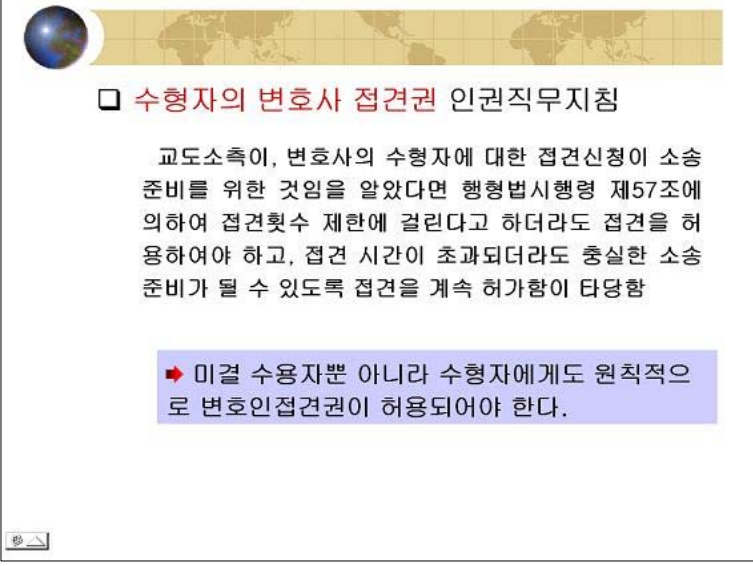


[강의자료 #34]

소장 작성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으므로, 일반 문서의 집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제36조)과 유럽형사규칙(42조)도,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 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문서에 비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장 기재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제소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소장 제출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요건은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소장 집필을 불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35 제시]



□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 인권직무지침

교도소측이, 변호사의 수형자에 대한 접견신청이 소송준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행형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접견횟수 제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접견을 허용하여야 하고, 접견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충실한 소송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접견을 계속 허가함이 타당함

▶ 미결 수용자뿐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접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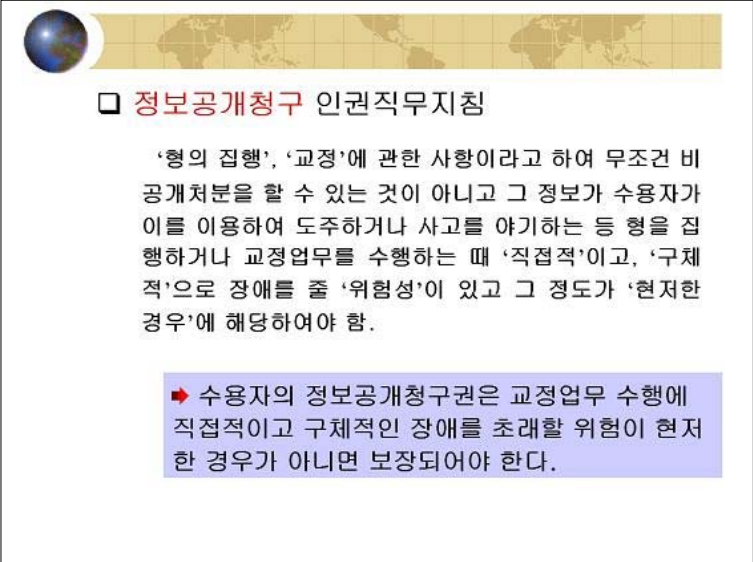
[강의자료 #35]

교도소측이, 변호사의 수형자에 대한 접견신청이 소송준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행형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접견횟수 제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접견을 허용하여야 하고, 접견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충실한 소송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접견을 계속 허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5) 정보공개청구의 보장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정보공개청구의 보장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36 제시]



□ 정보공개청구 인권직무지침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가 수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교정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자료 #36]

수용자가 공개청구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자신의 형의 집행과 관련된 것, ②일반 교정에 관한 것, ③위 두 가지 외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내용이다.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③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위 법률 제8조),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을 위하여 집필신청을 할 때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차별 및 기타

1. 교육목표

- 1) 신체검사 실시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교도작업 관리 면에서 사전예방 조치, 사후처리, 입법권고에 대하여 파악 하도록 한다.
- 3)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이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4) 수의착용의 원칙을 정확히 알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2) 교도작업의 관리 의무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3) 수형자 이송의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4) 수의착용의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3. 교육시간

10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설명자료, 직무지침 그림)

5. 강의내용 및 자료

- 1)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관련 법규와 판례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인권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37, #38 제시]

행형법규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부분을 소장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가 신체검사시 피검자의 명예와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판시함으로써 신체검사의 방법에도 일정 한도의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특히 신입수용자에 대해 종종 시행되어 오던 알몸 신체검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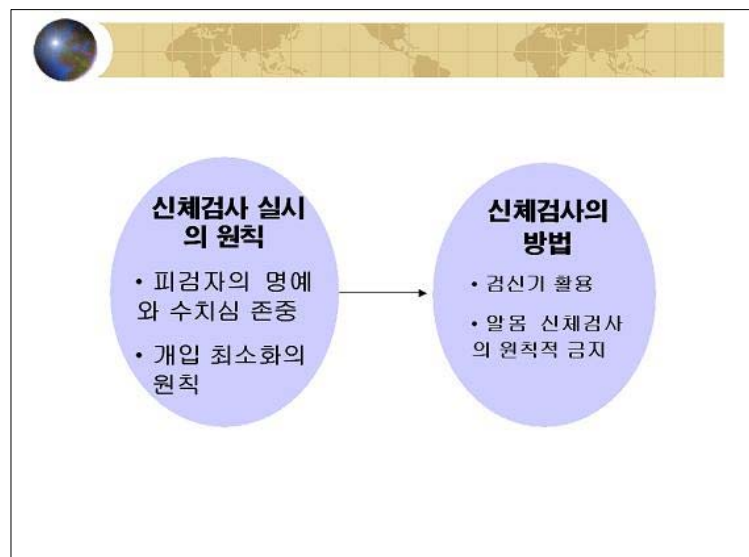


5. 차별 및 기타사항

□ 신체검사의 방법과 한계 인권적무지침

- 신체검사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알몸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여자 수용자의 신체검사는 여자 직원이 행해야 함
-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 실시에 앞서 필요성에 대한 안내부터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겹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게 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체함
- 출장, 출역, 운동, 목욕, 진료, 점검, 교화집회 등에서 환방할 때 실시하는 살체검사는 대형 검신기 또는 소형 검신기를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의자료 #37]



[강의자료 #38]

2) 교도작업의 관리 의무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교도작업의 사전예방 조치, 사후처리, 입법권고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39 제시]

최저기준규칙은 교도작업에 있어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및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작업에 있어서 관리자 내지 감독자의 주의의무는 오히려 일반사회의 자유근로를 관리·감독하는 경우보다 더 강할 것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교도작업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수행자의 작업기능은 일반사회의 근로자보다 통상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도작업을 위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는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내지 결과책임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행형법은 교도작업 중의 사고에 대해 단순히 위로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은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최저기준규칙이 권고하는 대로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과 같게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자료#39]

3) 수형자 이송의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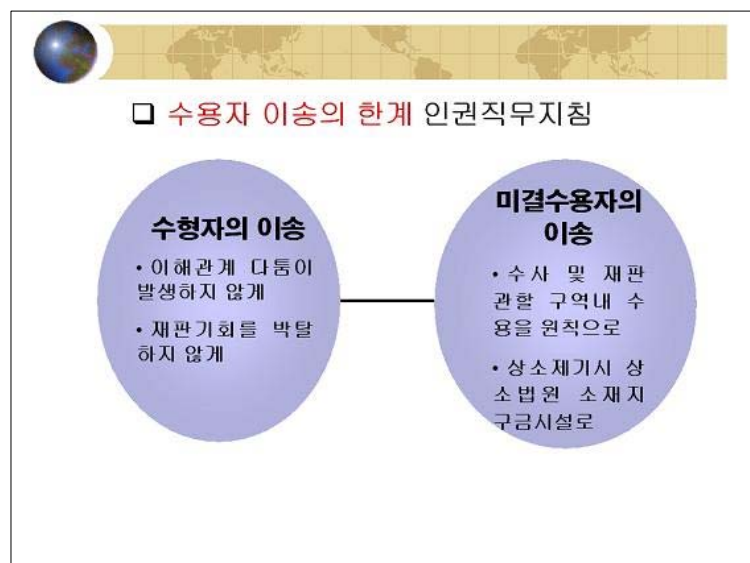
- ▶ 수형자 이송과 미결수용자 이송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강의자료#40 제시]

◎ 수형자의 이송

수형자의 이송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면 교정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재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해당 수형자에게는 거주장소의 변경과 함께 처우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여 간혹 이해관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형사사법 관리의 차원에서도 이송은 수형자들간의 교제범위를 넓혀서 지역적 범죄를 전국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재판에 연루되는 수형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송이 결정되어야 한다.

◎ 미결수용자의 이송

미결수용자의 구금은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거나 형사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수사 및 재판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 지방법원 소재지의 구금시설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법원 소재지의 구금시설로 이송되어야 하고, 반대의 이송은 금지된다.



[강의자료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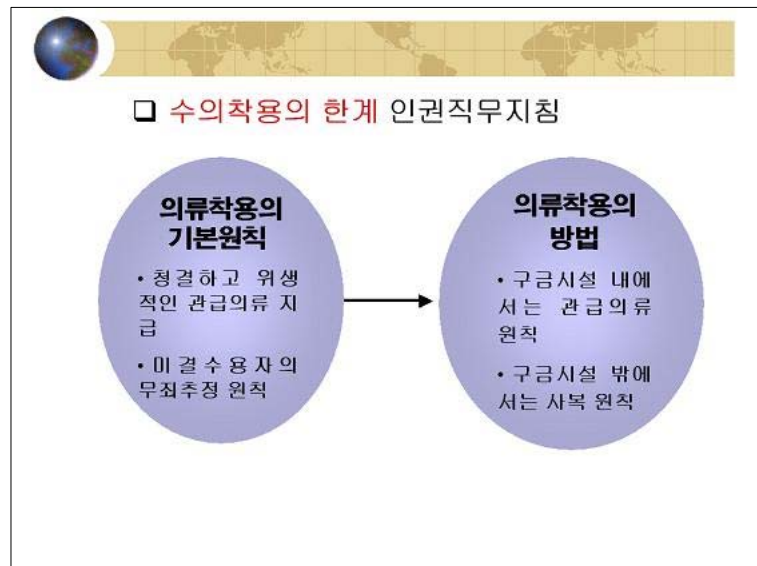
4) 수의착용의 한계에 대한 인권직무지침 제공

- ▶ 의류착용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대한 직무지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강의자료#41 제시]

최저기준규칙은 미결수용자 뿐 아니라 수형자에 대해서도 구금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류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출 시 사복착용의 자유를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는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구금시설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에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최저기준규칙 §17 ③)

헌법은 제 27조 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하며, 형사소송법 역시 제 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양보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외출하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원칙은 가감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강의자료 #41]

VI. 심 화

(※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본 심화 과정을 생략한다.)

1. 교육목표

- 1) 교육 내용을 여러 가지 사례들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 2) 여러 관련 사례들을 구별하면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 3)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가짐으로써 교육생들의 의문점을 해소시킨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여러 가지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기, 토론 내용 확인하기
소그룹 토론 시간에 나누었지만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육생들의 토론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준다.
- 2) 사례 설명하기, 의견 나누기
위의 사례들이나 또는 강사가 준비한 사례나 자료들을 설명하고, 부연적으로 교육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 3) 질의 응답하기

3. 교육시간

2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사례자료), 또는 관련기사 및 자료

5. 교육시 유의사항

- 1) 강사가 미리 관련 기사나 자료를 준비하여 그 사례를 중심으로 심화과정을 이끌 수 있다.
- 2) 질의응답 시간에 교육생들이 중요한 질문만 할 것으로 유도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도록 한다.

6. 강의내용 및 자료

◎ 수행 유도하기

① 사례 제시

☞ 교육생 심화 교육 전략

많은 사례를 다루면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보도록 한다. 어 떠한 사례가 일반성의 결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지적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는 데 표상의 다양성을 사용한다

▶ 사례를 제시한다. [강의자료#42 제시]



■ 사례 1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재소자 갑은 동료재소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을은 기소됨. 재소자 갑은 교도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조사실에 9일 동안 수용되었음. 그리고 갑은 징벌결정에 따라 3일 동안 징벌실에 수용되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병사로 보내졌음.

[강의자료 #42]

사례를 읽은 후, 이전 소그룹 토론에서 조에서 나누었던 토론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사가 읽어준다.

“00조에서는 이 사례에 대하여 _____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_____”

▶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해준다.

- ▶ 본 사례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를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교육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묻는다.

② 피드백

학습내용을 적용, 관련시켜서 설명하기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인다.

- ▶ 본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적법주장의 논리,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자료#42 제시]



■ 사례 1

간경화를 앓고 있던 채소자 같은 동료채소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을은 기소됨. 채소자 같은 교도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조사실에 9일 동안 수용되었음. 그리고 같은 징벌결정에 따라 3일 동안 징벌실에 수용되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병사로 보내졌음.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에 대한 조사를 지체하여 9일 동안이나 그를 계속 가두어 두었다면, 이와 같은 조사실 수용이 징벌(금치)의 편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중환자로서 병사에 수용되어 있던 자인데도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

[강의자료 #42]

- ▶ 본 사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
-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교육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묻는다.

◎ 파지와 학습의 전이 증진시키기

① 사례 제시

☞ 교육생 심화 교육 전략

새로운 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반복과 적용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개념을 적용하는 전이를 도와준다.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배운 내용이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서 전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 위의 같은 방법으로 5가지 사례를 차례로 제시한다.

[강의자료#43, #44, #45, #46, #47 제시]

또는 강사가 직접 준비한 사례나 자료를 제시한다.

- ▶ 본 사례들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적법주장의 논리,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에 대하여 나누고, 설명한다.
- ▶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적용을 관련시켜서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인다.

(※ 교육생들의 직책, 업무, 특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러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 사례2

과실범 감을 강력 범죄자들의 감방에 수용하였는데, 점호 시 감이 번호를 잘못 부르자 당직교도관은 동 감방의 수용자 전원에게 단체적인 불이익을 주었음. 이에 화가 난 수용자들은 감을 집단 폭행하여, 그 결과 감이 사망하였음

감의 사망에 대해 교도소 당국은 책임을 지야 할까?

[강의자료 #43]



■ 사례2

과실범 갑을 강력 범죄자들의 감방에 수용하였는데, 점호 시 갑이 번호를 잘못 부르자 당직교도관은 동 감방의 수용자 전원에게 단체적인 불이익을 주었음. 이에 화가 난 수용자들은 갑을 집단 폭행하여, 그 결과 갑이 사망하였음

갑의 사망에 대해 교도소 당국은 책임을 지야 할까?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해 죄질이 확연히 구별되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하였다면, 차후 발생 가능한 수용자간의 갈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를 했어야 마땅함. 아무런 대책 없이 갑을 해당 감방에 방치하여 둔 것은 교도소 당국의 과실

[강의자료 #43]



■ 사례 3

수형자 갑은 동료 수형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교도관 병이 제지하자 갑자기 자해행위를 시도함. 이에 교도관이 체포하려는데, 뿌리치고 도주하자 경비대원은 수형자를 정지시키기에 기세가 너무 난폭하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함.

물리력 행사는 적법한가?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중대한 규율위반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치명적인 물리력의 행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고려해야 함. 교도관이 강제력이나 총기를 사용함에는 필요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함

[강의자료 #44]



■ 사례 4

조적 공장에 출역하여 작업을 마친 수형자 갑은 작업용 장갑을 가지고 들어오려다 감신 담당 교도관에게 발각됨. 수형자가 불응하고 항의하자 교도관은 하퇴부를 수 차례 가격하면서 장갑을 빼앗음. 다음 날 전일의 사건에 대해 주의를 주는데 또 다시 갑이 항의하자 병은 호통을 치며 갑의 뺨을 때림.

교도관이 행한 제재조치는 적법한가?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항의를 발미 삼아 현장에서 하퇴부와 뺨을 때린 것은 자의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임. 단순히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력 행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강의자료 #45]



■ 사례 5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갑은 교도관이 게호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사방에 있던 을로부터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서신 발송을 신청하자 교도소 당국은 이를 거절함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함(헌법 제37조 제2항).

[강의자료 #46]



■ 사례 6

재소자 갑은 교도관 을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음. 갑은 을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욕하지 말라고 심한 말로 응수하자, 이로 인해 갑은 1개월의 징벌(금지)을 받음. 이후 갑은 을에게 “왜 웃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2개월의 징벌(금지)을 받음

◆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측면

재소자 갑의 다소 불손한 언행이 ‘금지’를 부과하여야 할 만큼 심각하게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인가? 또한 금지 이외의 다른 징벌수단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도 있었음. 이것은 비례성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강의자료 #47]

VII. 정 리 · 평 가

1. 교육목표

- 1) 교육생들이 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사전검사(O,X퀴즈)의 해설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교육내용 및 진행형식

- 1) 학습 목표 재확인
교육 도입 시에 제시되었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학습 내용을 재확인한다.
- 2) 학습 내용 정리, 적용에 대한 설명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3) 사전검사(O, X퀴즈) 해설, 자가진단하기
도입 단계에서 실시한 사전검사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각 문항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여 교육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 4) 강의평가 실시하기

3. 교육시간

15분

4. 교수자료 및 기타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정리요약 자료, 사후검사 피드백), 강의평가지

5. 교육시 유의사항

- 1) 본 교육의 의미를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2) 교육생들의 직책, 업무, 특성들과 관련지어서 적용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O, 퀴즈는 무조건 즉각적으로 해설을 제시하기보다, 교육생들이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도록 몇 초간 시간을 제공한 후에 제시한다.

6. 강의내용 및 자료

◎ 파지와 학습의 전이 증진하기

① 학습 목표 재확인

교육 도입 시에 제시되었던 학습 목표를 다시한번 제시하면서 학습 내용을 재확인한다. [강의자료 #48 제시]



❖ 학 습 목 표

- 1) 교정 공무원들이 인권의 개념과 유형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 2) 현 교정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알도록 한다.
- 3)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 4) 교정과 관련된 인권 직무 지침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자료 #48]

② 학습 내용 정리, 적용에 대한 설명

- ▶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강의자료 #49 제시]



[강의자료 #49]

- ▶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수용자의 인권보다 구금시설의 관리논리를 앞세웠던 우리의 전통적 행형 시스템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구금시설 당국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일반인의 수용자 인식도 진지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바뀐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의 운용이 여전히 응보의 실행에 머물러 있다면 행형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의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체관이 썩어질 수는 없다. 진정 우리 사회가 '사람다운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접과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 ▶ 앞으로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수용인원 적정화는 예산투여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일차적 과제라 할 것이다. 구금시설의 의료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료 및 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의료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구금시설의 의료상황은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 수용자 1인당 연간 5만원 안팎의 의료예산으로는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마저 제공하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축에 앞서 구금시설 당국이 스스로 관리 원칙과 지침을 재정립하는 것은 사회에 대해 물적, 인적 자원의 투자를 요구하기 위한 전제 업무이다. 구금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기획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고 내보여져야 사회도 구금시설에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수행 평가하기

① O, X퀴즈 해설하기

- ▶ 도입 단계에서 실시한 사전검사를 다시 한번 제시한다.
[강의자료 #50, #51, #52, #53, #54, #55, #56 제시]
- ▶ 각 문제만 먼저 제시한 후, 5-6초간 교육생들이 정답을 생각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 다음, 한번 클릭하여 해설 부분을 제시하도록 한다.





O X 퀴즈

1. 도주 내지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에게는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강의자료 #50]



O X 퀴즈

1. 도주 내지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에게는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계구는 수용자에게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계구의 착용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행한 위법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지니서는 안 된다. 행형법도 징벌수단으로서의 계구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행형법 §14 ③).

[강의자료 #50]



2. 징벌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없다. ()

[강의자료 #51]



2. 징벌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없다. ()

(○) 징벌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행형법 §46 ③). 다만 징벌과 형사처벌은 다른 제재이므로 동료재소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형법규정저촉’으로 징벌을 받은 자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또 다시 형벌을 부과 받는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강의자료 #51(클릭)]



3.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갈 때, 사복착용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

(×) 미결수용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관급의류(수의)를 착용시킨 것이 헌법위반인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리하면, 수용시설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위헌이 아니지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때까지 강제로 수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위헌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강의자료 #52]



4.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의 경우 매일 1회, 수형자의 경우 매월 4회로 제한되지만, 수용자의 서신발송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 행형법시행령은 접견의 경우 제한을 두지만(§56) 서신발송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61).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횟수 제한의 기준을 서신발송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강의자료 #53]



5. 구금시설의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 구금시설은 바깥사회에 비하여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따라서 수용자의 질병이 구금시설 내에서 치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금시설 밖의 병원에 이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도록 행형법령은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29, 행형법시행령 §103 참조).

[강의자료 #54]



6.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 수용자가 처우에 대한 불복을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경우에,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행형법 §6 ③).

[강의자료 #55]



7.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이나 도서의 구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거실에서 집필을 할 수도 있다. ()

(○)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행형법 §33). 아울러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집필을 할 수 있고(행형법 §33의3), 집필장소로는 집필실, 거실, 작업장안의 지정된 장소 등이 모두 가능하다(행형법시행령 §66).

[강의자료 #56]

② 강의 평가 실시하기

- ▶ 강의평가지(부록)를 교육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강의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한다.
- ▶ 강의 평가 내용 중에서 내용의 난이도, 교육 방법의 적절성, 건의사항들은 다음 강의 계획에 참고로 하도록 한다.